

# “先進 G7圈진입 달성위해 과학기술드라이브政策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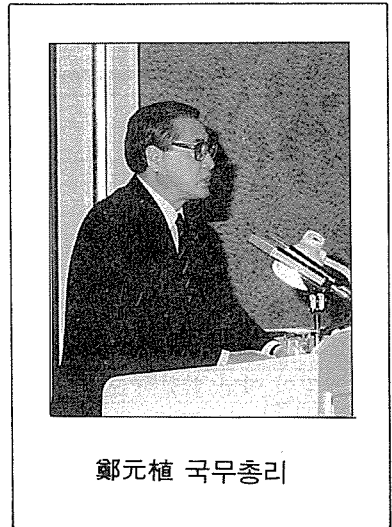
壬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전국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에 봉직하고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신년인사를 나누게 된 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科學技術立國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평소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격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안으로 민족의 역량을 모으고 국력의 기반을 다져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理念과 體制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의 바탕이 종래의 軍事力에서 經濟力과 科學技術力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과학기술이 한나라 경제와 산



鄭元植 국무총리

업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과학기술진흥에 온 국력을 쏟고 있으며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기술보호의 장벽을 날로 높게 쌓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는 그야말로 “政治의 우방은 있어도 科學技術의 우방은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처럼 작은 국토에 자원이 빈약하며 인구가 조밀한 나라가 생존을 확보하고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 과학기술진흥에 경주하는 것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은 組立, 加工 등 일부 생산기술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나 設計, 素材분야 등 산업의 기반과 핵심이 되는 기술은 매우 취약하며, 특히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뚜렷한 固有기술이 없는 실정이라 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21세기까지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을 先進 G7圈에 진입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여 우리의 가능한 재원과 인력을 특정분야의 과학기술개발에 집중투입하여 그 효과를 모든 분야로 광범위하게 파급시켜 나가는 전략을 취해나가코자 합니다.

우선 다가오는 '96년까지 900여개 生産 基盤技術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난해 말 선정한 14개 核心先導技術을 집중 개발하여 2000년까지는 이 분야에 관한 한 세계일류 기술보유국으로 발돋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계 7대 情報通信선진국이 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환경, 보호분야 등 公共福祉기술을 발전시켜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기초과학에 있어서도 2000년에는 연간 3만편이 넘는 국제수준의 논문이 발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선진국과는 물론 南北間의 과학기술 교류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같은 中·長期 과학기술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까지 과학기술투자를 국민총생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연구개발인력도 16만명선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科學技術드라이브 정책>을 지속해 나간다면 앞으로 5~6년후에는 분명 可視的이고 창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科學技術人 여러분.

과학기술진흥은 결코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과학기술계를 이끌고 계신 여러분께서 왕성한 연구개발의욕과 실천력으로 적극 호응하고 뒷받침해 주실 때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통한 <科學技術主權>의 확보없이 우리는 더 이상의 수출증대도 경제성장도 사회복지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대학과 연구소, 산업체 등 각계의 과학기술인 모두가 합심하여 우리 사회전체에 과학기술혁신의 “魂과 生命”을 불어넣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미래가 과학기술진흥에 달려 있다는 시대적 명제를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